



열린소리

열린 소리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에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 200자 원고지 4매 하이텔(ID): jeng3
◇보낼곳 : 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 J003

유료주차제 융통성 부족

장애학생 편의도모해야

학교 정문 앞에 유료주차장 색소가 생긴지 꽤 오래 되었지만, 그 동안 어떤 부딪힘이나 특별한 관심 없이 지나왔다. 그런데 목요일, 어찌구무 없는 일을 실제 경험하고 보니 유료주차장색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 날 이른 아침부터 비가 왔다. 나는 지체부자유자로서 양손으로 목발을 짚어야 하기 때문에 우산을 받을 수가 없다. 오해 이런 날은 일찍 서둘러 택시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날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는 택시 잡는 사람들이 많아서 통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가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불가 싶어서 자가운을 향해 손을 들었는데, 용케 경희 의료원에 오시는 분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었다. 문제는 우리 학교 정문에 들어서면 서부터 생겼다. 문리대를 향해

올라 가려는데 주차검색소에서

제재를 받았다. 목발을 보며 주면서 문리대에 올라 갔다. 곧장 나을 것이라고 부락을 하였지만, 주차요원은 장애인 50% 할인이 되니 주차표를 끊으라고만 했다.

도움을 주신 아저씨께 죄송해서 인사를 드리고 곧장 내려갔다. 그리고 주차요원에게 항의를 했다. 주차요원의 대답은 간단했다. 학생 처지는 이해하지만 원칙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택시는 되는데 자가용은 왜 안 되느냐라는 말에 자가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로 목살해 버렸다.

나는 결국에는 "돈도 돈이지만"이라는 말을 내뱉고는 가는 다란 빗방울을 맞으면서 문리대를 걸어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

유료주차제를 실시한 의도가 무엇인가?

유료주차제를 실시한 의도 가운데에는 학생들의 편의라는 명목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

실로 학생들의 편의라는 점이 배려가 되었는지는 의문스럽다. 그리고 원칙이 과연 평등하게 원칙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 또한 예외인 경우를 상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 용 주

(국문 2)

외부인출입으로 인한 피해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시골벽적인 캠퍼스 이 가을만큼이나 그 모습이 싱그러웠다. 개강 초기에는 마냥 어색했던 친구들 모습도...

하지만 이렇듯 시골벽적인 분위기도 늘 싱그러웠지만은 않다. 더군다나 약간의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할 때에는 말이다. 예를 들면, 시험을 앞둔 날이라던가...

아무튼 그런 때에는 조그만 소음에도 온갖 신경이 거슬거기 마련인데 거기에 한몫을 더하는 것이 바로 대외 사람들의 학교출입이다.

얼마 전, 교문 앞에 인근 주민들에게 전하는 학교측의 메시지를 읽은 적이 있다. 학생들의 강의가 있는 시간대에는 귀에 거슬러온 뽀뽀소리가 익숙해질만 하자 이제 소리의 강도가 높아진 휴대폰이 등장하여 캠퍼스를 흔들어 놓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휴대폰 소리를 때문에 강의 중간에 끊기게 된다는 것이다. 하계방학을 마치고 오랜만에 듣는 교수님의 강의에 한참 집중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소리가 교수님의 당황하고 그 순간 열중하던 강의는 일시 중단됐다. 그 순간 학생의 입장으로 고

짜투리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나친 자기 것에 대한 소유욕 내지는 인근 주민에 대한 비배려적 모습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대외 사람들의 학교 출입반대의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학생들이 대외 사람들에게 학교를 공원명목으로 제공받고 있는 거라면 최소한 제공받은 사람으로서 제공해 준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학업이 주업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학교니까 말이다.

또한 학교측도 이렇게 대책 없이 대외 사람들을 출입시킬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고, 최소한의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지 우

(문리대 물리 1)

휴대폰으로 인한 수업중단

다른학생 위한 배려필요

뽀뽀의 보급률이 급증되면서 학내에서 뽀뽀소리를 들기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귀에 거슬러온 뽀뽀소리가 익숙해질만 하자 이제 소리의 강도가 높아진 휴대폰이 등장하여 캠퍼스를 흔들어 놓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휴대폰 소리를 때문에 강의 중간에 끊기게 된다는 것이다. 하계방학을 마치고 오랜만에 듣는 교수님의 강의에 한참 집중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소리가 교수님의 당황하고 그 순간 열중하던 강의는 일시 중단됐다. 그 순간 학생의 입장으로 고

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 학우에게 질책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다.

학생 신분으로서 고가의 기기를 소유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비난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학생으로서 가장 집중해야 할 강의시간에 수업에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학생들은 기기를 소유하되 사용하는데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모조록 휴대폰을 소유한 학생들에게 바라건대 강의시간중에는 휴대폰을 꺼놓는 배려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윤 현 용

(중문 1)

도서관에서 알립니다

일일 약 1천5백~2천명의 학생 이용에 따라 도서 배열의 혼란과 파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학생들이 책을 보고 난 후 마구 서가에 꽂아 둬서 해서 배열 질서가 난무하게 되어 많은 이용자에게 지장을 초래하거나 책의 일부분을 오리거나 찢는 등등.

따라서 자료 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책을 보고 난후 제자리에 꽂아 놓거나 책상 위 또는 복트럭에 올려 놓기를 당부하고 책을 파손하는 행위는 일체없도록 하여 질서있는 학문의 장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허 중

(수원중앙도서관장)

인터뷰

다만 우리학교 학생이 아니기를...

—현금카드 도난 피해자 김정옥(약학 4)양



"다만 우리학교 학생이 아닐까 바랄 뿐이예요. 우리학교에 있다고는 믿고 싶지 않거든요."

지난 9월13일 돈을 인출하기 위해 교내 우체국에 갔다가 우연치 않은 사고로 순식간에 2백만원의 돈을 분실한 김정옥(약학 4)양의 솔직한 심정이다.

사고가 있던 날 김양은 우체국에서 돈을 인출하던 중 범인으로 추정되는 2명의 남성들에게 비밀번호를 노출, 학생식당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뒤를 쫓아온 그들에 의해 가방 안에 넣어 둔 학생수첩을 도난당한 것이다.

"별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제 실수로 잃어버린 줄 알았죠. 하지만 수첩 안에 있는 현금카드가 걸려 우체국에 분실 신고로 했는데 그 땐 이미 제 현금카드에서 2백만원이 빠져 나간 상태였어요."

범인이 인출해 갔다는 2백만원의 출처는 다름 아닌 2년여의 시간 동안 김양이 일궈 낸 노력의 결실이었다. 지난 해 3월부터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거리를 오가며 과의 지도를 해서 모은 돈으로, 그 돈은 대학생활 마지막 학기 등록금으로 쓰여질 돈이었다.

처음엔 허술한 관리태세를 갖추고 있는 우체국이며 그런 점에 대해 별반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은 학교측이 더 원망스러웠다는 김양의 말처럼, 아무리 우편물 취급과 발송이 주요 업무인 것이 우체국 사정이지만, 그래도 금융기관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기로 했으면 그로써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현실이 아쉬울 뿐이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 땐 참 화도 많이 났는데..."라며 그 당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

"정말 그 돈이 절실히 필요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라던 다음에서라도 보답하겠노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 주셨으면 해요.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말이죠"라고 말하면서도 연신 우리학교 학생이 아닐까 바란다고, 우리학교 학생의 것이 아닐 거라고 말하는 김양은 이야기하는 동안 쓴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강남이 기자)

朔風

꿈을 잃어 버린 우리들 모습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들의 이야기이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디는 선배들에게 학교에 남아있던 우리는 축하의 덕담과 아쉬운 이별의 추억들로 채워져야 할 졸업생 송별회 자리를 이유없는 적개심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시간들로 채워진 채 있었다. "우리에게 가르쳤던 대로 형도 사회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해", "머리에 넣어두고 다니는 지식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지식을 갖추기"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고 진실한 선배들의, 아주 오래도록 학교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신화로 남아 있어야 할 선배들의 의기소철한 푸념조의 얘기들을 들어야 했다. "사회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견고하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시대의 평범한 살러리맨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정말 어쩔 수 없다고". 물론 그

런 선배들의 뒤통리 속에서 우울한 미래의 인정보다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들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치기의 시간을 뒤로한 채 사회로 진출을 하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요즘 잘 나간다는 '굿모닝 팝스'를 틀어놓고 대충 아침식사를 한다. 출근 시간과의 숨막히는 전쟁도 이제는 그다지 긴장이 되지 않는다. 하루종일 PC앞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이제 VDT 증후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몸이 나른할때도 있지만 잠시도 나태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지금 내가 일하는 모습을 인사 고과를 받고 있는 부장이 보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이 프로젝트를 마쳐야 하는데 정말 가능할까. 왜 카드 빛은 갈아도 갈아도 자꾸 붉어지지. 남들은 '자바 프로그래밍'도 보고 심지어는 '엑셀브레스'라는 것까지 보기도 시작하는데 왜 나는 지금도 엑셀프

는 고사하고 윈도우즈 프로그래밍도 끝내지를 못하지. 갖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만 맘 편하게 얘기할 인간도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더욱 불안한건 요즘 사회분위기이다. 수출이 부진하고 경제가 위기에 빠진게 살러리맨들의 잘못된가. 작년까지만 해도 다가오는 21세기 세계 초일류 내지는 최고의 기업이 되기를 위해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사원들을 위해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어느 회사도 지금의 이 현실을 예측하고 대책을 미리 준비한 회사는 없었다. 그리고 이런 경제위기의 주원인이 근로자의 임금이고 그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쳐대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 임원급들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으니 공통분모 차원에서 사원들도 이에 동참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한 각 회사들

마다 명예퇴직제가 확산되고 있고 이번에 모회사에서는 생산직에서 임원급까지 8백명이 명예퇴직을 하였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강 건너의 불'이 아닌 현실로 느낄만큼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매출액이 없다고 사업부서가 해체되고 바뀌어진 인사평가 제도는 실적 제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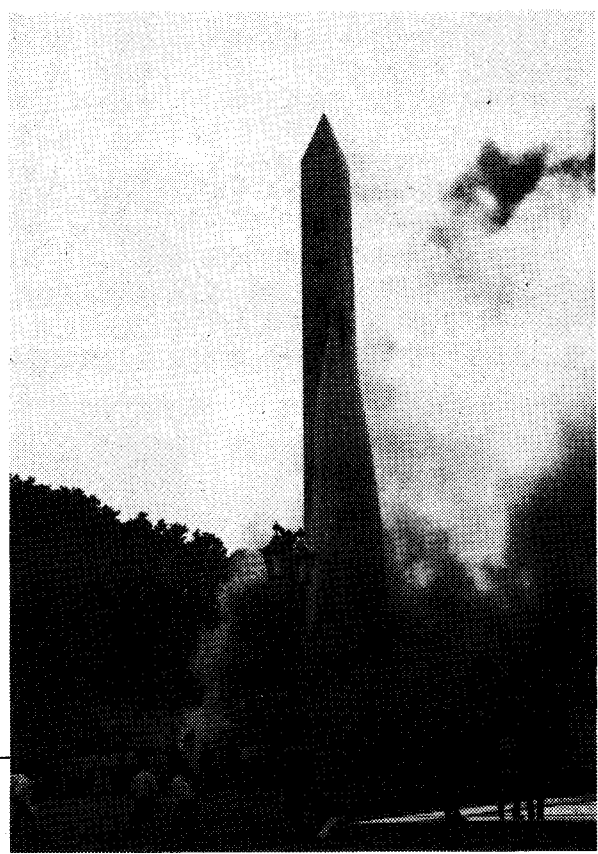
취업 합격통지서를 받고, 첫 출근을 하면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으면서 가졌던 꿈들이 점점 희미해져감을 느낀다. 그리고 과거에 그 살아있던 꿈들을 이제는 뭐라고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살러리맨들의 꿈은 무엇일까. 혹시 추식날 여전히 이쁜 마누라와 토끼같은 자식을 데리고 고향에서 여전히 전제 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건 아닐까. (포비)

포커스

옥의 티

지난 18일 수원 캠퍼스 사색의 광장에서 중앙도서관 개관 기념식이 있었다. 행사중 기념탑 제막식에서 탑을 가려 놓았던 천이 줄에 걸려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

(공평성 기자)



TOEIC 시험은 ICF/YBM 시사영어사가 주관합니다!

취업과 유학 준비는 YBM 시사영어사에서

YBM 시사영어사 어학학원

ELS

신규 프로그램!

COUPON제 회화

- Native와 1대1 수업실형
- 사전 예약에 의한 자유로운 시간 선택
- 취업 면접과 실무능력의 배가



● YBM시사영어사는 국내의 141개의 학원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NETWORK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그 지명도는 국내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 ELS 회화 교수진은 전원 TESL(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경험이 풍부한 Native Speaker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학습규모는 15명 내외로 영어로만 수업진행, 철저한 집중학습, 같은 수준 학생끼리의 Class 편성으로 미국 현지와 똑같은 분위기에서 진행합니다.

YBM 시사영어사 어학학원

제인점 모집 문의 (02)561-0509

YBM 프로그램

1. Conversation Course I (1일 2시간/세배, 오전, 오후, 저녁)
2. Conversation Course II (1일 1시간/오전, 오후, 저녁)
3. Foundation Course (한국인 회화/문외치: 신촌, 역삼, 부산)
4. 주 2,3회 Conversation (문외치: 신촌, 서면)
5. AFKN 청취 Course (문외치: 종로, 강남)

ELS 프로그램

1. Intensive Course (1일 6시간/09:00-16:00)
2. Semi-Intensive Course (1일 3시간/오전, 오후, 저녁)

TOEIC 프로그램

1. TOEIC 종합반 (1일 2시간/내·외국인 공조수업)
2. TOEIC L/C (1일 1시간/청취력 향상 집중 Course)
3. 엘리트 안바사 TOEIC (고득점을 위한 종합적 교재/문외치: 신촌)

TOEFL 프로그램

1. KAPLAN TOEFL (1일 3시간/Native에 의한 원어 강의)
2. TOEFL 종합반 (1일 3시간/고득점을 목표로 철저한 성적관리)

日本語 프로그램

1. 본격 집중코스 (1일 4시간)
2. 일본어 회화 코스 (1일 2시간/세배, 오전, 오후, 저녁)
3. 기초 일본어 코스 (1일 2시간/세배, 오전, 오후, 저녁)

KAPLAN 프로그램

1. NCLEX-RN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
2. USMLE (미국 의사 면허시험)
3. GMAT/GRE/LSAT/SAT (문외치: 역삼)